

농·임산물 898개 품목 '군수 품질인증'

'강진 불곰불파' 올 상반기 매출액 1.2억 달해

청양군, 가공제품 4개·벌꿀 7개 농가도... 총 301곳

소포장재 비용 80% 지원... 농협환경 개선장비도

충남 청양군이 군수품질인증대상을 선정, 지역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 '2026년 청양군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임산물 301농가(898개 품목)와 가공품 2개 업체(4개 제품), 벌꿀 7개 농가에 대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품질인증마크의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된다.

신선도가 생명의 농·임산물과 벌꿀의 인증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2027년 6월22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제조·유통 과정을 거쳐서 가공품은 지난 23일부터 2029년 6월22일까지 3년간의 인증 기

간을 보장받게 된다.

대도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인증 농가는 도입 첫해인 2021년 103농가를 시작으로 2022년 168농가, 2023년 235농가, 2024년 283농가, 2025년 298농가에 이어 올해 301농가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명품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인증을 획득한 명품 농산물은 직매장과 학교급식, 대규모 공공급식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어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촌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군수 품질인증을 획득한 농가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촌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총 18차례 운영... 5753명 방문

멘트론-채널프로 참여 2491명

하반기행사 오는 9월 중순 재개

전남 강진군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인 '2026년 상반기 불곰불파' 행사 가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에서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불곰불파 행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세대도시관 대학생과 50~60대,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추진된

지역 활력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군은 병영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불거리, 골길거리, 마거리, 살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불곰불파 행사는 4월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반기 행사 총 18차례를 개최하고 18회 운영했다.

총 5753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불고기 판매, 청년세프콘, 패지방, 아트마켓, 병영시장 홍보 등 행사장내 판매실적은 총 1억 2200만원에 기록했다.

또한 멘트론 이용 및 채널 프로

그램 참여 인원은 2491명으로 집계되며 지역 먹거리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하반기 행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현장 운영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하반기 불곰불파 행사는 오는 9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군은 가을철 병영의 매력을 살린 '정원 잡초' 프로그램을 '은행나무길 담장정원' 등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강진=정찬민 기자 jcrso@siminilbo.co.kr



전통시장서 국토대청소 운동. 충남 서산시에서 지난 23일 '일제 대청소의 날'을 맞아 동부전통시장 일원에서 국토 대청소 운동을 전개했다. 동문2동 주민과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생활폐기물과 담배꽂이 등을 수거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사진은 국토 대청소 운동에 참여한 주민과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7일 '삼베길쌘마을 문화축제'

예산군, 삼국 개방동 체험 다채

충남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7일 광시면 신촌삼베길쌘마을 일원에서 우리 고유와 농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19회 예산삼베길쌘마을 전통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에서는 삼을 짜내는 '삼국 개방'과 갓 짜낸 농산물을 나누는 행사와 열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삼국 개방 과정을 재현한 옛날 기계 미선 프로그램 '삼베베틀그라운드'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재료 수색부터 삼국 개방 신포까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도장을 모두 받으면 '삼베치킨 박스'를 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은 이와 함께 ▲삼베베틀체험 ▲삼베길쌘 밧기 ▲삼베길쌘잔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예산=김희석 기자 kus@siminilbo.co.kr

아동센터·경로당등에 '자동소화파괴'

구미시, 총 1060개 설치 완료

분전반동 전기화재 초기 진화

경북 구미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대표소(경로당·마을회관)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소화파괴기 1060개 설치를 완료했다.

최근 노후 전기설비와 배선 이상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가 잇따라

햇빛소득마을 공감대 확산 팔연어

영양군 '찾아가는 햇빛교실'

재생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

전남 영양군은 최근 가야금산조기법관에서 군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기후에너지학교 찾아가는 햇빛교실'을 개최했다.

제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구간이다.

자동소화파괴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소수감소 소화장치다. 화재 확산을 막고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예방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화재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초기 진압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구미=박병성 기자 pbs@siminilbo.co.kr

전남지역 전력계통 현황,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영주시 구양리 이장이 햇빛소득마을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장승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지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영양=정찬민 기자 jcrso@siminilbo.co.kr

영광군, 라오스 MOU 체결근로자 2차 도입

내달 8일 입국해 농가에 배치

인력난 해소효과·만족도 높아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추진도

전남 영광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MOU 체결근로자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2월 군에 따르면 이번 2차 입국은 오는 7월8일로 예정돼 있으며,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다시 한 번 지역 농가에 배치될 계획

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도입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성과와 함께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지

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군은 앞서 MOU 체결근로자를 도입 후 근로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인력난 해소 효과가 뚜렷했고 농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추가 요청과 긍정적 인 평가를 반영해 2차 입국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추가 도입을 통해 수확기와 주요 영농 작업 시기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외국 인 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가에서는 영광군은 MOU 체결근로자의 규모가 늘어

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자체나 농업 등 공공 부처가 근로자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농가 개별 관리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의 인손 부족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며 "협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광=장승준 기자 jsv@siminilbo.co.kr

해남군, '직장 내 갑질 제로화' 전방위 추진

온·오프 신고창구 상시 운영

일상화책 치유·법률지원 지원

전남 해남군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중점의 중요하고 과제로 삼고 예방과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갑질'은 조직내 신뢰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은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온·오프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한 신고제도를 마련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고,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필요시 분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도 운영하고 있다.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갑질 근절 시약과 침향 찰진, 자기주도 학습 등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내 갑질 인식과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며,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회의를 거쳐야 하는 병행할 방침이다.

해남=정찬민 기자 jcrso@siminilbo.co.kr

'시·세대를 잇는 공감력' 개최

순천 남문터광장 작은미술관

전남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7월7일부터 순천문화재단 남문터광장작은미술관에서 2026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인력 공모사업 '시간을 잇는 예술 세대'를 잇는 공감력'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류실업을 거쳐 선별된 18개 단체 중 5개 기관(순천문화재단·양평문화재단·포천문화재단·평창문화재단·청송문화재단)이 최종 선정됐다. 개진식은 오는 27일 오후 3시 남문터광장 작은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5화차 전시 중 첫 번째 전시로 순천의 대표 캐릭터 '뽀뽀'를 비롯해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낙안 민속마을, 순천만 갈매 나무꾼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주요 테마로 했다. 문화자원은 리사이클 아트를 통해 환경과 지역에 대한 테마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청년 작가들은 뽀뽀·에이메이션, 시각적 작업을 중심으로 동시대적 키워드를 표현했다.

순천=이민석 기자 lms@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밀폐공간을 보유한 부서 관계자들이 신청서요청접수장에서 밀폐공간 긴급 구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산청군, 정수장 밀폐공간 긴급 구조 훈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23일 산청생수처리정수장에서 밀폐공간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밀폐공간을 보유한 부서 담당자 등이 3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훈련은 중대산업재해(집시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자의 관리와 근로자가 참여해 응급처치를 익히고 재해 상황에 대한 실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훈련에서는 밀폐공간 안전 작업 기준과 재해 사례를 포함한 이론과 실제 밀폐공간에서의 실습이 진행됐다.

산청=김정현 기자 kjy@siminilbo.co.kr

또 ▲사고자 구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이송 등 실제 대응 과정에 맞춰 질의 제해 발생시 필요한 구조 절차를 중심으로 훈련했다.

(사)대한산악회보건의학회와 산청소방서는 재해자 구조 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산청=이경수 기자 jys@siminilbo.co.kr

경남도, 돼지질병 방역관리 강화 설명회

경남도가 지난 23일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방역 담당자, 유관기관, 민간단체 관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질병 방역관리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료 안료 관리부터 농장 예방, 도축장 검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료 안료 오염관리 강화 ▲사료용 열악한 검사 의무화 ▲폐사체 및 환경검사 중심 농장 예방 확대 ▲미국인 근로자 입국 통보 자동화 ▲맞춤형 방역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가 생산성과 직결되는 유행성살사염(PEPD), 돼지생식기초염증후군(PRRS) 등 주요 돼지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백신접종 관리, 고위험군 방역관리 강화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경양돈농협 클리닉센터 전담수의사가 민간기관의 돼지 질병 검사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종합정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남=김정현 기자 kjy@siminilbo.co.kr

장흥 나눔지원봉사회, 홀몸노인등 복지나눔 실천

전남 장흥 나눔 지원봉사회가 지난 23일 2026년 전라남도 지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봉사자와 함께 포근한 세상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지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반찬 나눔, 정서지원 특공체험, 이불 세탁·건조, 김장 나눔 등 총 18회에 걸쳐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총 22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기관인 장흥지역자활센터 위수이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홀로 생활하는 대상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황승준 기자 whng04@siminilbo.co.kr

홍성군, 여름철 수난사고예방 순회 안전교육

충남 홍성군은 지난 23일 여름철 물놀이와 갯벌활동 증가에 따른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수난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부면 지역주민 및 연인원비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부면 행정복지센터와 연인 마을회관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했다.

군은 비롯해 홍성소방서, 보림해양경찰서, (사)한국안전진흥

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안전교육 전문강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연안해역 안전수칙 및 수난사고 사례 ▲물놀이 예외 상황 시 유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및 119 신고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안내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전남도립미술관, '뮤지엄 나이트' 야간 전시

전남도립미술관은 24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9시까지 열릴 개관하고, 야간 프로그램 '뮤지엄 나이트'를 운영한다.

뮤지엄 나이트에선 현재 전시 중인 11화 11곡, 삶을 품다'와 연계한 '뮤지엄 토크쇼'를 진행한다.

오후 9시부터 당일 큐레이터가 해당작가의 작품 세계와 전시 구성 배경을 소개하고,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자는 네이비 예뻐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전남도립미술관 뮤지엄 나이트'는 매일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오후 9시까지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야간 관람 프로그램이다.

직접인과 지역인이 최근 후에도 전시를 관람하도록 마련했으며, 전시 해설과 공연, 큐레이터 토크 등을 운영한다.

'11화 11곡, 삶을 품다'는 지난 3월18일 개막한 전시로,남도 수묵의 전통을 바탕으로 작화한 11화씩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전시는 연장 운영해 28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남양=황승준 기자 whng04@siminilbo.co.kr